

2013. 4. 11(목) 18:30 ~ 20:30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룸
중견기업 육성 포럼 환영만찬



만찬사

2013. 4. 11

중소기업청장

반갑습니다.

중소기업청장 한정화입니다.

존경하는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님,
홍석현 중앙미디어네트워크 회장님,
어윤대 KB금융그룹 회장님,
미하엘 폭스(Micheal Fuchs) 기민·기사연합 부대표님,
롤프 마파엘(Rolf Mafael) 주한독일대사님!

먼저 “중견기업 육성: 독일의 경험에서 배운다”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리고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경제는 위기에 강한 저력을 과시해 왔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전반적인 세계 교역 감소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여
세계 무역규모 8강에 진입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등
대외적 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있으며,

성장동력은 약화되고,
수출, 부가가치, 임금 등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심화되고,
중산층의 어려움은 지속되는 등
국내 경기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여건 하에서
박근혜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을 설정하고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국가 발전 패러다임을 선도형 창조경제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하는
성장사다리가 원활히 작동하는 역동적인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글로벌 경제위기에서도,
중견기업이 건실하게 성장하고 다수의 히든 챔피언을 보유한 독일은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른 위기 극복과 안정적 성장세를 보인바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는
경제의 허리역할을 하는 중견기업군이 부족하며,
오히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새 정부는 기업성장 사다리 구축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그간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던
중견기업 육성 업무를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여,
창업·벤처부터 중견기업 육성까지
일관된 성장촉진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원활한 중간회수 시장 및 재도전 환경 조성 등
기업 생애주기 전체에 걸친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청은 벤처 창업의 투자·회수시장을 활성화하고,
창조적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수립중에 있으며,

금년 6월말까지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수립하여,
조세, 금융, 하도급, 판로, 인력 등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급격히 축소되는 지원제도·법령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금년 내에 R&D·수출지원·금융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글로벌 하이웨이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며,
우수인재의 장기재직을 위한 「희망엔지니어 적금」 등도 추진하는 등
우리나라에도 독일 히든 챔피언과 같은

글로벌 전문기업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그간 추진해온 기업정책을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고
기술, 금융, 인력, 수출 등 각 분야별 정책을 융합적으로 재설계하여
체계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기업가 여러분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시장의 불확실성과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창조적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는 불굴의 기업가정신은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과
한국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들은 세계 일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혁신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 대한 도전정신을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 정부의 직면한 많은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중심에
바로 우리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내일 있을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독일의 생생한 경험과 현실을 공유하고 배우는 한편,

우리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부의 올바른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